우리나라 고대사 揆園史話 ⑭

규 원 사 화

▣ 一沙 權 正 孝 옮김

(지난호에 이어)

그런 까닭에 다음해 겨울 10월에 왕이 도읍을 국내(國內)로 옮겼으니, 곧 그 땅은 단지 산수가 험준하고 들판이 광활할 뿐만 아니라 또한 농사짓기에 적당한 곳임을 알 수 있다.

무릇 옛날에 도읍을 세울 때는 반드시 험준하여 견고하며 산물이 풍부하면서도 교통이 편리한 곳을 취하였다. 지금의 평양이나 송경과 한양 등지의 땅이 모두 그렇지 않은 곳이 없으며, 장안과 낙양이 항상 한나라에서 도읍을 세우는 땅이 됨은 또한 그러한 까닭에서이다. 그러한 즉 단군의 세대에 백성과 사물이 점차로 번창해지고 교통이 더욱 요긴해지며 또한 농사짓는 일도 따라서 점차 일어나게 되니, 그 속말(粟末) 땅을 버리고 남쪽으로 패수의 물가로 옮겨와 후일의 융성한 운세를 도모하게 되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又按《唐書·地理志》曰: [自鴨 江口, 舟行百餘里, 乃小舫溯流, 東北三十里, 至泊 口, 得渤海之境; 又溯流二百里, 至丸都縣城, 故高麗王都; 又東北, 溯流二百里, 至神州; 又陸行四百里, 至顯州, 天寶中, 王所都; 又正東如北六百里, 至渤海王城.] 云. 今, 自鴨綠江口, 約行四百餘里, 乃得婆 江合流處, 又行二百里, 至江界.滿浦鎭隔江處, 田野開豁, 山河固密. 盖檀君南遷四百餘里, 定都于古鹽難水之東, 浿水之北, 渤海.神州 神化等地, 殆無疑, 而渤海之時, 猶傳其蹟也.

또한 《당서.지리지》에 의하면 [압록강 어귀로부터 배로 1백여 리 가서 또 작은 배로 동북쪽으로 30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박작구(泊 口)에 이르러 발해와의 경계에 닿는다. 2백리를 또 거슬러 올라가면 환도현(丸都縣)의 읍성에 이르는데 옛날 고려왕이 도읍한 곳이다. 또 동북으로 2백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신주(神州)에 이르고, 또 육지로 4백리를 가면 현주(顯州)에 이르는데 천보(天寶) 연간에 왕이 도읍한 곳이다. 또 바로 동쪽에서 북으로 6백리를 가면 발해의 왕성에 닿는다] 라고 하였다.

지금 압록강 어귀로부터 약 4백여 리를 가면 이내 파저강(婆猪江)과 합류하는 곳에 이르고, 또 2백리를 가면 강계(江界) 만포진(滿浦鎭) 강의 맞은편에 닿게 되는데, 밭과 들이 광활하고 산과 강이 견고하게 밀집되어 있다. 대저 단군이 남쪽으로 4백여 리를 옮겨와서 옛 염난수(鹽難水)의 동쪽이요 패수의 북쪽인 발해의 신주·신화 등지의 땅에 도읍을 정하였음은 거의 의심할 바가 없으며, 발해 때는 여전히 그 유적이 전해졌었다.

乃復祭天而薦新居, 築城郭, 建宮室, 浚溝, 開田陌, 勸農桑, 治漁獵, 使諸民進用餘之物, 以補國用, 民皆熙熙而樂之. 時有, 蒼鹿遊郊外, 靑龍見朝天池. 檀君乃出巡, 至南海, 登甲比古次之山, 設壇祭天. 還至海上, 赤龍呈祥, 神女奉, 有一童子, 衣緋衣, 從中出謁, 檀君愛之, 因姓曰緋, 名曰天生, 遂爲南海上長. 及還至平壤, 有三異人, 自東方渡浿水而至, 首曰仙羅, 次曰道羅, 又其次曰東武. 於是因二龍之祥, 改虎加曰龍加, 使仙羅主之, 道羅爲鶴加, 東武爲狗加. 又因蒼鹿之瑞, 改鷺加曰鹿加, 依前, 使夫虞主之, 制治比前更完矣.

이에 다시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새로운 거처로 옮겨 성곽을 짓고 궁실을 세우며 봇도랑을 준설하고 밭두둑 길을 열어 농업과 누에치기를 권장하였으며, 어로와 수렵을 가르치고 모든 백성들에게 쓰고 남은 물자를 진상하게 하여 이로서 나라의 살림에 보태게 하니, 백성들은 모두 화합하며 즐거워하였다. 이때 푸른 사슴

이 교외에서 뛰어 놀았으며, 푸른 용이 조천지(朝天池)에 모습을 드러내었다. 단군은 이에 순행을 나가서, 남해에 이르러 갑비고차산(甲比古次山)에 올라 제단을 설치하고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 돌아오는 길에 바다에 이르니 붉은 용이 상서러움을 드러내 보이고 신녀가 함을 받들어 바치는데, 한 동자가 붉은 비단 옷을 입고 그 함속에서 나와 단군에게 알현하기에 그를 사랑스럽게 여겨 성을 비(緋)라 하고 이름을 천생(天生)이라 지어 주었더니 마침내 남해상장(南海上長)이 되었다.

돌아와 평양에 이르니 3명의 비범한 사람이 동방으로부터 패수를 건너와 있었는데, 그 첫째는 선라(仙羅)라 하였고, 다음은 도라(道羅)라 하였으며, 또 그 다음은 동무(東武)라 하였다. 이에 두마리 용의 상서러움이 있었다고 하여 호가(虎加)를 고쳐 용가(龍加)라 이름하고 선라로 하여금 이를 주관하게 하였으며, 도라는 학가(鶴加)로 삼고 동무는 구가(狗加)로 삼았다. 또 푸른 사슴의 길함으로 인해 노가(鷺加)를 녹가(鹿加)로 고쳐 부르고 예전처럼 부우로 하여금 이를 주관하게 하니, 제도의 다스려짐이 이전에 비하여 더욱 완전하게 되었다.

當是之時, 檀君之化, 洽被四土, 北 大荒, 西率兪, 南至海岱, 東窮蒼海, 聲敎之漸, 偉乎廣矣. 乃區劃天下之地, 以封勳戚. 蚩尤氏之後, 封于南西之地, 巨野浩豁, 海天 碧, 曰藍國, 宅奄慮忽. 神誌氏之後, 封于北東之地, 河嶽(鹿)[莊], 風氣勁雄, 曰國, 亦稱肅愼, 方言, 豪莊之稱也.

(다음호에 계속)

우리 모두의 孝道法 國會 上程

한국과 중국 한 달 사이를 두고 일명 화제법이 화제다. 한국에서는 지난 8월 6일 자식이 부모에게 불효하면 부모가 증여한 재산의 환수를 가능하게 하는 효도법이 국회의 상정되었다. 중국에서는 60세 부모에 대해봉양을 강제하는 법이 이미 지난 7월부터 시행중이다. 새누리당 정수성[경북 경주]의원을 대표로 해서 지난 6일 상정된 발의된 민법 일부개정안은 자녀가 부모봉양을 전제로 증여받은 뒤 부양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증여를 즉시 해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의 발의는 최근 증여 후 부양을 소홀히 하는 자녀를 상대로 물려준 재산을 다시 내놓으라는 부모들의 소송이 증가하고 있으나 승소하는 경우가 드문 실정을 반영해 이루어졌다. 현행법으로는 소유권 이전 등기 등 이미 증여가 이루어져 특별한 부양 의무 계약이 없는 한 부양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증여를 해제할 수 없다.

개정안은 부양의무가 있는 친족 간의 의무는 부양의 것으로 주장하고 의무를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증여가 이루어진 것은 책임은 증여를 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이에 관한 증명 책임은 증여를 받은 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아울러 부모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녀를 상대로 부양의무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을 시 즉시증여를 철회하고 원상회복 하도록 부양조건부 증여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중국이 시행하고 있는 노인권익보장법의 따르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자식들은 정기적으로 부모를 방문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매달 부모에게 용돈을 주어야 한다. 부모 부양을 피하기 위해 유산 상속권을 포기하는 것도 안 된다. 직장 때문에 부모와 멀리 떨어져 사는 직원에게 고용주들이 매년 20일간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미 법의판례도 나온 상황 이다.

첫 판례가 나왔다. 강소성 북당 인민법은 77세 여성이 딸을 상대로 작년 9월 이후 자신을 찾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하자 '노인의 딸과 사위는 의무적으로 2달에 한 번씩 추 씨를 방문하고 매년 최소 두 차례 국가공휴일에 추씨를 찾아가야 한다'고 판결했다.

동방예의지국에서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成均館 典儀 權 貞 澤 옮겨옴

임원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합니다

▣ 종무위원회비

△권영환(음성)	20만원

▣ 대의원회비

△권오섭(진천)	10만원
△권오현(음성)	10만원
소 계	20만원
합 계	40만원

■ 역사기행

서울 양재시민의 숲속 매헌 윤봉길의사의 상

▣ 향촌 권 오 창 (본원 자문위원)

서울 서초구청 옆 서울도시철도 신분당선 양재역에서 청계산 쪽으로 한 정거장만 가면 양재 시민의 숲 역이다.

이곳에서 하차하면 시민숲 공원 입구 오른쪽에 매헌 윤봉길의사의 동상을 볼 수 있다. 양복을 입은 자세로 한 걸음 앞으로 나서 오른손을 높이 쳐들고 외치는 우람하고 늠름한 모습이다.

윤의사는 1932년 4월29일 일본 천황의 생일인 천장절(天長節)을 맞아 중국 상해사변(上海事變) 전승기념식을 하는 홍구(紅口)공원에 들어가서 식장 단상에 폭탄을 투척하여 대한 남아의 기상과 대한독립의 의지를 만방에 떨치고 일본 제국주의를 응징한 쾌거를 행하였다. 그날 일본군 상해 파견사령관 대장 시라가와(白川義則)는 죽었으며, 제3함대사령관 노무라(野村三郎), 제9사단장 우에다(植田謙吉), 주중공사 시게미쓰(重光葵) 등에게 중상을 입혔다. 그리고 일본 상해거류민단장 가와바다(河端)도 죽었다.

윤의사는 거사 직후 현장에서 체포되어 오사까(大阪)으로 이송 복역 중 군법회의에서 사형언도를 받고 1932년 12월19일 사형집행으로 25세의 짧은 생을 마쳤으나 숭고한 애국애족 정신과 살신성인한 독립투쟁은 천추에 길이 빛나고 청사에 영원히 기록되었다. 더욱이 필자가 몇년 전에 상해임시정부청사를 탐방하였을 때에 상해임시정부 요인사진과 활동기록 벽면 자료에 윤의사가 일경에 체포되는 현장사진과 윤의사가 거사 전에 태극기 앞에서 오른손에는 권총, 왼손에는 수류탄을 쥔 사진을 볼 수 있었다. 한편, 하나하나 안내자의 해설을 들었을 때에 너무나도 감개무량하였다.

윤의사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더 알아보자. 윤의사는 1908년 6월21일 충남 예산군 덕산면 시량리에서 파평 윤씨 윤황공과 김원상 여사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본명은 우의이고 호는 매헌이요 봉길은 별명이다. 윤의사는 일찍이 나라 빼앗긴 설움과 가난을 벗어나기 위하여 농촌부흥운동에 부흥축산장려회, 체육회, 독서회, 효 실천회, 월진회 등을 조직하여 농촌계몽활동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1930년 초반에는 대한독립운동에 심신을 바치겠다는 큰 뜻을 품고 장부출가생불환(丈夫出家生不環)이라는 글을 남기고 상해 임시정부를 찾아가서 백범 김구선생을 만나 한인애국단에 가입 백범 김구선생의 지시를 받아 홍구공원 거사에 투신하였다.

윤의사의 상해 의거를 장개석총통은 중국의 백만대군도 하지 못할 일을 대한 청년이 해냈다고 찬사를 하는 한편 상해 임시정부를 적극 지원하였다. 또한 만보산사건으로 중국화 소외되었던 관계를 만회하였다. 그리고 중국과 공동으로 항일독립운동을 전개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제국주의에 대항하여 공동투쟁 동반자로 인식을 함께 하였다. 그리하여 침체되었던 독립운동을 되살리고 광복군의 활동도 활기를 띠게 되었다.

윤의사는 사형언도를 받고 "우리가 아직 힘이 약하지만 대한독립은 멀지 아니하여 꼭 올 것이다. 대한 남아로서 할 일을 다 하고 나는 떠난다"라는 유언을 남겼다. 윤의사는 오직 애국애족 구국의 일념으로 부모와 하직 이별하고 대한독립을 위하여 일신을 바쳤다. 그의 한인애국단 입단 시 선서문을 보면 '나는 적성(赤誠)으로서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회복하기 위하야 한인애국단의 일원이 되야 중국을 침략하는 적의 장교를 도륙하기로 맹서하나이다. 대한민국 14년 4월26일 선서인 윤봉길 한인애국단 앞'이라는 기록사항도 확인할 수 있다.

윤의사의 애국애족의 숭고한 업적과 살신성인의 정신의 높은 뜻을 기리기 위하여 이에 예산읍에서 덕산온천으로 가는 대로변에 윤의사의 기념관 동상 재실 등 소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윤의사의 정신을 더욱 선양하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매헌 윤봉길의사 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양재시민의 숲'에 윤의사의 동상(1995년 건립)과 숭모비(1996년 건립), 기념관(1988년 준공)을 성금으로 조성하게 되었다. 기념관은 한국식 3층 와가콘크리트 건물로 1층과 2층에는 유품과 생애사진 및 항일 독립운동사진이 전시되어 있고 편지쓰는 체험실이 있다. 유품(보물 568)은 선서문 1매(1권), 회중시계 1개, 지갑, 화폐, 도장 1개, 손수건 1개, 안경집, 일기책, 월진회창립취지서 12매, 농민독본 2권, 편지 4신 등 국유 또는 사유로 보관 관리되고 있다. 1962년 건국공로훈장, 중장수여 사항도 있다. 3층에는 세미나 강의실 강당이 있으며 앞뜰에는 잔디밭과 넓은 주차시설이 있다.

끝으로 오늘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있기까지는 윤의사와 같은 많은 애국지사와 독립운동 선구자의 거룩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번영과 국가발전을 가져왔다고 확신한다. 그분들의 고귀한 희생에 보답하기 위하여 그분들의 정신을 올바르게 계승하여 희망찬 국가건설에 크게 이바지할 때라고 생각하는 바이다.

제1화

기회를 잡는데 강한 유유

권 중 달 (중앙대 명예교수, 삼화고전연구소 소장)

삼국을 통일하였던 진(晉)이 북방에서 오호(五胡)가 내려오는 바람에 쫓겨 장강지역으로 가서 다시 세운 진(晉)왕조를 역사에서는 동진이라고 불린다. 그 후 근 300 년간 한족(漢族)이 세운 왕조는 남부인 장강 유역에 머물러 있었고, 그 후로 이 지역에서 왕조가 4번이나 바뀌어 삼국시대에 이 지역에 자리하였던 오와 동진을 합쳐서 여섯 왕조가 남부에 존재했다 하여 6조(朝) 시대라고 한다.

이 300년 동안 남조는 항상 북방민족이 세운 북조(北朝)에게 밀리고 있었다. 물론 전진(前秦)이 동진을 완전히 삼키려고 100만 대군을 몰고 내려왔지만 제풀에 꺾여 비수(肥水)의 전투를 계기로 다시는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을 꺼리기는 했지만, 결코 북방으로 쳐 올라가서 고토(故土)를 회복한다는 꿈을 실현하지 못했다.

거기에다 동진 안에서 권력을 잡은 환현(桓玄)이 결국 독립하여 초(楚)를 세워 황제에 올랐으니, 남부지역에는 동진의 황제 외에 또 한명의 황제가 있게 되었다. 중원지역을 내 놓고 남쪽으로 쫓겨왔으니 당연히 고토(故土) 회복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할 처지였는데, 권력을 잡은 사람이 자기의 사욕을 채우려고 한 짓거리였다.

이때에 홀연히 나타난 사람이 후에 남조의 송(宋)을 세운 유유(劉裕)였다. 그는 처음에 북부(北府) 장군인 손무종(孫無終)의 군사참모였다가 손은(孫恩)이 반란을 일으키자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군사적 재능을 보였고,

후에 환현이 독자적 정권을 수립했을 때에 의병을 일으켜서 환현을 격파하고 동진정권을 구출하였다. 그러므로 유유는 동진의 구세주였지만 그에게도 기회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유유가 그냥 동진의 구세주가 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조실부모하여 동냥젖으로 살았으며, 어려서는 짚신을 삼아 팔면서 고생을 하면서 자신을 단련하였었다. 그래서 가난뱅이였었지만 기회가 올 때에 이를 놓치지 않았고, 손은의 반란과 환현의 칭제(稱帝)라는 사건을 계기로 그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한 것이다. 이러한 공로를 통하여 유유는 동진에서 중요한 권력자가 될 수 있었다.

그 후에도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유유는 당시 북조는 4분5열 된 것을 이용하여 자기의 위치를 더욱 확고하게 다져 나갔다. 동진의 바로 위에 있는 연(燕)지역이 후연과 북연, 서연, 남연으로 나뉘었으니, 유유는 남조의 고토수복 의지를 이용하여 좋은 기회로 만들었다.

이 기회를 놓질 수 없었던 유유는 남연을 정벌하자고 했다. 그러나 인순고식한 조정의 인사들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였지만 이미 권력을 잡은 유유가 밀어 붙였다. 그리고 자기를 믿고 따르는 좌복야 맹창(孟昶)·거기장군부의 사마 사유(謝裕)·참군 장희(臧熹)를 데리고 가서 남연의 항복을 받아냈다. 남연이 분열 된 것을 기회로 삼아 이용한 것이다.

그러나 유유만이 상황을 보는 것은 아니었다. 동진의 남쪽 끝인 광주(廣州)에 있는 사람들은 원래 이 지역 사람들은 기회만 있으면 독립하려 하던 터라 동진의 유유가 북쪽으로 남연을 치러가는 틈을 이용하여 군사를 일으켜서 동진의 도읍인 건강(建康, 남경)을 향해 올라왔다. 사실 이러한 염려 때문에 동진 조정의 많은 대신들은 남연 정벌을 반대했던 것인데, 이것이 그대로 나타났다.

유유로서는 위기를 만난 셈이다. 조정에는 여전히 그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으므로 그들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그를 제거하려 하였다. 그러나 유유는 돌아와서 적은 병력을 가지고 적절한 용기와 전략으로 남부의 강력한 반발 세력을 토벌했다. 이것이 그가 후에 동진으로부터 선양을 받아 송을 건국하게 된 토대였다.

기회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 6.25라는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를 이렇게 단련시키지 못했을 것이다. 마찬 가지로 취직이 어렵다고 아우성하는 젊은이들은 이 어려움이 자기를 단련시키는 기회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바로잡습니다

지난 458호 유적지 순례(판서공의 자손들)충성공 균의 후사 찬(澯)에 틀린 곳이 있어 아래와 같이 수정합니다.

[공은 준(準)과 수동(壽東) 두 아들을 두었는데 준(準)은 후사가 없고, 수동도 2대에서 절손되니 현(鉉)의 아들 찬(澯)을 공의 계자(繼子)로 하였다.]

서울산악회 산행 안내 (제227차)

■ 일 시 : 2013년 9월 15일 오전 10시 (매월 셋째주 일요일)
■ 집결장소 : 전철 국수역 (중앙선)
■ 등 산 지 : 청계산

▲ 회장(권영석) : 011-207-6549, 02)453-6549 ▲ 사무국장(경탁) : 010-3796-4047, 02)963-5222
▲ 등반대장(오준) : 011-718-4204, (오익) : 011-205-6134
※ 준비물 : 점심, 간식, 물, 산행 필수장비, 물컵
※ 산행시 개인행동을 삼가시고 단체 행동을 해주십시오.
※ 개인 행동시 안전사고가 날수 있으며 사고시 각자 책임입니다.

※ 서울산악회 카페 주소는 http://cafe.daum.net/ankwonsmm입니다.

2013년 9월 1일

안동권씨서울산악회 회장 권 영 석

마포종친회 9월 월례회 안내

회원님 가정에 화목·건강·행운이 함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마포종친회「9월 월례회」(정기)를 아래와 같이 개최코져 하오니 많이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13년 9월 26일(목) 오후 7시 (매월 4번째주 목요일)
■ 장 소 : 우가촌(가마솥설렁탕) : 02)702-5047, 010-5358-2840
■ 오시는길 : 지하철 5호선 공덕역 ⑤번출구 지하철 6호선 공덕역 ⑥번출구→ 공덕오거리 →르네상스타워(옆)→공덕지구대(파출소)뒤 →우가촌(설렁탕)
■ 연 락 처 : 회장 권승구 : 02)718-8437, 017-271-8437
■ 총 무 권일부 : 02)714-4500, 010-3796-6980

2013년 9월 1일

안동권씨 마포종친회 회장 권 승 구

행복한 결혼을 찾아주는

하 나 결 혼 정 보

소장 권 경 분

권문(權門)의 자녀 결혼상담을 언제든지 환영하며 성심성의껏 우대하겠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889-5 샹제리제센타 A동 1706호
(지하철 2호선 분당선 선릉역 ①번 출구)

○ 상담전화 : (02)501-1177
○ FAX : (02)508-5285
○ H·P : 010-3203-3555
○ 자택 : (031)794-0980
○ E-mail : hm1003@hanmail.net